

충성대신보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충고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제 201호 NEWS

- 02 학교소식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 03 학교소식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1위
- 04 학교소식 생도 59기 합동교육 / 60기 병영체험
- 05 학교소식 5~6월 문화예술공연
- 06 생도광장 스승의날 행사 / 호국 · 보훈의 달 의미
- 09 생도광장 생도들이 선호하는 병과는?
- 11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 킬링
- 12 교양 2023 트렌드 노트
- 14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배현국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오찬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201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송동익, 김영우, 상병 설영환, 일병 윤춘기, 김형민, 임은혁

유튜브 웹예능 '전과자', 육군3사관학교 일일 체험·소개

지난 6월 9일, 유튜브 채널 'ootb STUDIO'의 웹예능 '전과자' (매일 전과하는 남자)에 '육군3사관학교' 편이 소개되었다. 그룹 비투비의 이창섭이 구독자 50만 명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재입대한 것이다.

* 유튜브 '전과자' : 그룹 비투비 이창섭이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10~20대 MZ세대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캠퍼스 문화 부흥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 대학캠퍼스의 다양한 학과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는다.

이날 그는 학교에 입교한 뒤 오전에는 군사사학과 박동휘 교수의 '현대전쟁 연구' 수업을 받았으며, 오후에는 실습으로 훈련장을 방문하여 각개전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수업을 마친 그는 "오늘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은 뒤에 장교가 되는 것임을 알았다"며 "장교를 희망하고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육군3사관학교로 오시는 걸 적극 추천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육군3사관학교편 영상은 현재 업로드 400만을 돌파(23. 6. 26 현재)하며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주무관 길진규



유튜브 채널 'ootb STUDIO' 화면 캡처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다양한 금연환경조성사업을 통해 병영 건강증진에 이바지

지난 5월 31일,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학교가 금연환경조성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학교는 금연캠프 참여, 금연 송 제작, 금연 서포터즈 운영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연환경을 조성했다. 또, 학교 전 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상담실(담배꿈차)을 운영하고 민·관·군을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꾸준한 활동으로 인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학교는 지금까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17.5.31.)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군 금연 우수부대 5회 선정(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우수한 금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학교가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포럼에서 금연환경조성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맞아 학교 충혼비 및 영천 호국원 참배 ”

◀ 학교장(소장 배현국)이 학교 충혼비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나라 지킨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제 68회 현충일을 맞아 학교 충혼비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와 대구 지역 3사 동문회 40여 명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영천 호국원으로 이동하여 59기, 60기 생도 360명이 함께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가졌다.

이날 학교장(소장 배현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 생도(59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된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영천 호국원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생도들





대학/일반부 1위를 수상한 생도들과 지도교부. 왼쪽부터 대위 이선우, 대령 두석주(지도교부), 함재규(59기), 김태지·이정술(60기), 나다훈·유진욱(59기), 하사 하기면(드론교관)

1 제1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1위 수상

드론 축구 · 드론레이싱 · 드론챌린지 3개 종목, 210여명 참가자의 부문별 경연



지난 5월 25일과 26일, 제2작전사령부와 경운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광역시 후원하는 '제1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2작전사 대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대한 대내외 공감

대를 형성하고 드론봇 운용의 전문기술 숙달과 전투 발전 소요를 도출하며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드론봇 경연대회는 '드론 축구'를 비롯해 '드론 레이싱', '드론 챌린지'의 3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군인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군인부는 80여 명이, 대학/일반부는 육군3사관학교, 경북대를 비롯한 13개 팀 13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지난 2022년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59기 함재규, 나다훈 생도를 필두로 59기 류제범, 유진욱 생도와 60기 김태지(女), 이

정술 생도는 지난 2개월간 실력을 연마한 결과, 드론 축구 종목에서 대학/일반부 1위(육군참모총장 상장, 100만 원 상금)를 수상함으로써 드론봇 운용의 전문기술 숙달을 위한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59기 함재규 생도는 "작년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대회를 준비할 수 있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지도교수님, 훈육장교님, 드론교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왼쪽부터 지도교수 임소정 중위, 최예진·강대한(60기), 오은민·김태진(59기) 사관생도

2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 우수상 수상

MZ세대의 가치관과 리더십 주제로 열려

지난 6월 13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2023년 리더십 심포지엄'에서 심리학과 4명 1개 팀(59기 오은민·김태진, 60기 최예진·강대한)이 우수상인 공군사관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은 'MZ세대의 가치관과 리더십(공동체와 나)'을 주

제로 각 군 사관생도와 일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분과별 발표·토론에는 4개 학년별 분과에서 예선을 통과한 4팀씩 총 16개 팀이 발표했으며 심사를 통해 분과별 최우수, 우수 1팀씩 총 8팀을 선정하였다. 생도들은 4분과에서 '리더십 5단계로 본 성장하는 리더십'의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59기 오은민 생도는 "각 군 사관학교, 일반 대학생 참가자들과 함께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장차 군의 리더로서 필요한 소양을 쌓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제1회 군악부대 창작군가경연 대회, 장려상 수상 창작군가 발굴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지난 5월 23일 육군본부 공보정훈실 주관으로 실시한 제1회 군악부대 창작군가경연에서 학교 군악대가 장려상(육군참모총장상)과 상금 20만 원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경연은 군악부대 장병들의 우수한 창작군가 발굴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① '육군' 하면 떠오르는 군가, ② 한미동맹 관련 군가를 주제로 한 경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군악부대

45곳을 대상으로 예선(음원평가)을 진행한 뒤, 우수한 10개의 부대를 선정하여 본선(대면평가)을 진행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군악대는 창작군가 '무적'이라는 곡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군악대장(소령 장문성), 군악계획장교(중위 이민성)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우수한 기량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주무관 길진규



제1회 군악부대 창작군가경연 시상식 기념사진. 군악대장(소령 장문성, 앞줄 오른쪽 3번째), 군악계획장교(중위 이민성, 뒷줄 오른쪽 3번째)

푸른 계절, 문화예술공연과 어우러진 충성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마련”



①②③ 경산시립교향악단 문화예술공연 (5. 12.)

④⑤⑥ 가정의 달 맞이 군악별빛 음악회 (5. 12.)

⑦⑧⑨ 코미디연극 '라이어 1탄' (6. 16.)

주무관 길진규

미래전장 주도를 위한 합동성 역량 강화

59기 4학년 생도, 해·공군사관학교 및 부대 방문하여 4일간 합동교육 진행



◀ 합동교육 간 훈련센터에서 전투기비상탈출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 합동교육 간 IBS 기동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사관생도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합동교육은 육군 장교로의 임관을 앞둔 4학년 사관생도들이 해·공군 사관학교와 해·공군 부대 등을 방문함으로써 육·해·공군 간 유기적인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먼저 해군 교육은 잠수함 및 함정 건

학, 해군 무기체계 소개, 해양 체육활동(IBS 생존 수영 체험 등), 서해 수호관 및 천안함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군 교육은 공군작전의 중요성과 작전수행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 작전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훈련센터와 공사 천문대 방문, 공군 무기체계 소개 및 비행기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생도 만남의 시간'을 통해 상호 사관생도들의 소통

의 장을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도 가졌다. 4학년 성세영 사관생도는 "견학 및 현장체험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합동교육을 통하여 타군의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육·해·공군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수호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견지한 가운데 타군을 존중하며 말은 바치심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소령 이상민

60 병영생활 체험을 통한 예비소대장 자질 함양



▶▶ 60기 사관생도들이 병영생활체험 간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60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전방 1진 부대에서 병영생활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병영생활 체험은 1사단, 3사단, 8사단, 9사단, 12사단, 17사단, 21사단, 28사단을 실습 부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60기 생도들은 실습 간 생도다운 복장, 용모, 태도 및 실습 군기를 확립한 가운데 각각 편성된 부대 일정에 따라 병영생활 전

반에 대해 체험을 진행하였다.

병영생활 체험은 생도들에게 있어 실제 아전에서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성향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전에서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전투준비(경계작전)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소대장으로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울러 용사들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직접 소대장으로서 구비해야 할 역량을 생도 개개인이 직접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병영생활 체험은 매년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소대장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주무관 길진규

스승의 가르침, 고맙습니다!

59기 기자생도 지혜연



스승의 날 생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받은 훈육요원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생도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 교수, 훈육관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생도들을 위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마련된 이번 행사는 생도대 5부회 등 지휘근무생도들이 전 생도들을 대표하여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동기회 / 남부회장 안형모(59기)

동기회는 군사학처에서 교수님들에게 카네이션을 증정해드렸다. 생도들의 교육에 항상 힘써주시는 교수님들에게 동기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여단본부 / 공보정훈참모 성세영(59기)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항상 받기만 했던 나의 위치에서 스승님들에게 나의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3사관학교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의 참모습과 잠재력을 찾을 힘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예 장교라는 목표가 생겼으며, 가르침과 큰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여단본부 / 인사참모 손현지(59기)

스승님들의 칭찬, 열정적인 가르침을 받아 열정으로 학업에 임하였으며, 이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3사관학교에 첫발을 들인 어리숙한 모습에서 현재의 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단본부 / 지휘통신참모 현지웅(59기)

스승의 날은 평소엔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학교장님을 비롯한 훈육관님, 교수님 모두 저에게 스승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꼴애 나가 초급장교가 될 생도로서 스승에게 감사함을 항상 간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생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받은 학교장(소장 배현국)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담긴 의미

59기 기자생도 이승엽

호국보훈(護國報勳)이란 '나라를 지킨다'의 호국과 '공훈, 공로에 보답한다'의 보훈이 합쳐진 말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 그들이 잠들어 있는 호국의 성지인 이국 영천에서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수호의 간성이 되기 위해 연마 중인 우리 사관생도들에게 6월의 의미는 남다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으며, 또 기억되고 있을까?

6월 1일, 의병의 날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고 기억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로 13번째 경남 의령, 경북 영천, 전남 나주 등 전국의 의병 발생지에서 돌아가며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힘을 모아 싸운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과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현충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정확한 국가 추념일로 다른 공휴일과 다르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6월 10일, 6.10 만세운동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에 학생들이 주도한 민족독립운동으로 당시 침체되어있던 독립운동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날이다. 3.1 독립운동, 11.3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국내 3대 항일운동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그동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다가 2020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주관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6월 25일, 6.25 전쟁

6월 25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기념일 중 하나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전쟁이 발발한 사건으로서, 이를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기념일인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 칼을 겨누던 아주 슬픈 역사다. 아직도 북한에 고향과 가족을 두고 온 많은 분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것 또한, 이 전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볼 수 있다.

6월 29일, 제2연평해전

한·일 월드컵의 마무리를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박 사이의 해전을 말한다. 이로 인해 참수리 고속정 1정이 침몰하고 우리나라 해군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부상을 당하게 된 뼈아픈 날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은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존재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로 가는 장병들 또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인연하고 평화롭게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공휴일이라고 좋아하기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어떨까?

가정의 달 맞이 군악 별빛음악회

60기 기자생도 이재원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 충성 강당에서 군악 별빛음악회를 실시하였다. 사관생도, 간부 및 군가족, 국군간호사관생도들까지 참여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1부 5월의 향연은 지휘자인 군악대장(소령 장문성)의 지휘를 주도로 진행되었다. 군악대는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바이올린을 시작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오프닝으로 시작된 'Prince of JEJU'는 충성 강당을 제주에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충분했다.

2부 가정의 달로서 우리는 가족을 우선으로 제일 먼저 떠올린다. 2부의 주제는 '가족사랑'으로 군악대에서 북무 중인 유명한 일병과 59기 관향별 생도, 조민기 생도가 2부를 장식했다. 유명한 일병은 라디(RaD)의 '엄마'라는 곡을 통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으며 많은 여운을 남겼다. 뒤이어 관향별 생도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노래를 선곡했으며, 함께 등장한 어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향한 딸의 마음, 어머니가 딸을 위한 마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조민기 생도가 김진호의 '가족사진'을 부를 때 실제 가족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노래의 감정에 더욱 공감하고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인원들도 많았다.

2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생도 아버지께서 물레 쓰신 감동적인 편지내용을 사회자가 직접 읽어주며 눈물바다가 되었다. 생도들의 마음이 닿았는지 직접 별빛음악회에 자리해주셨고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을 수 있었다.

3부 분위기를 전환하여 엄청난 흥행을 이끈 영화 '라리랜드'의 메들리를 들으며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을 다시 재연하는 듯 별빛음악회에 참석한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4부 마지막으로 꽃피는 대한민국을 소리로 보여주는 군악대와 국악컴퍼니 '민음' 김단희 국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나라, 홀로 아리랑을 불렀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휴대폰 플래시 빛을 이용해 높게 들어 흔들 때 실내가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이었다. 연주회의 열기가 후끈해졌기에 더욱 끝나는 게 아쉬운 무대였던 것 같다.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생도에게 청결은 생명

생도에게 청결이란 무엇일까? 청결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꾸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청결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생도 중에서 유독 씻지 않는 생도가 있다. 같은 방을 쓰는 인원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곤 한다. 이제 곧 영천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온다. 제발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루 한번 샤워로 청결을 유지하자.

문제아 보존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상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는 문제아들에게도 적용된다. 각 중대에는 문제아들이 존재한다. 매년 입학하는 기수의 생도들은 생도대에 오면 문제아인 선배들을 보며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 하며 새롭게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지곤 한다. 하지만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문제아 선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동기가 그 자리를 채워나간다. 이것이 문제아 보존의 법칙이 아닐까..?

여무새

오늘도 생도대에 아침 햇살과 함께 무수한 새들의 짹짹 소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많은 새의 소리 중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뭐니뭐니해도 어리고 귀여운 새끼 새들에게 날리는 수새들의 플러팅 소리다. 사회에 짝이 없는 눈에 보이면 매사 적극적인 대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을 먹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멜로가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윽히 바라보며 취침 인사를 한다. 주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써지는데 목소리까지 들으니 나도 모르게 이 수새들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이름은 바로 여무새요.

비료

무더위 속 매일 늘어가는 땀걸음 코스에 비해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나의 기록은 1급이다. 하지만 이런 위축된 나를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해주는 동기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못 땀겨면 A조를 오지 말아야지", "저 속도에 맞추면 우리 언제 실력을 키우냐" 등 뒤에서 동기들의 온갖 비난 속에서 반박을 하고 싶지만 다 맞는 말뿐이라 할 말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동기들이 원하는 속도로 내 페이스를 만드는 것. 낮엔 쓴소리를 들으며 뛰고 밤엔 쓴소리를 되새김질하며 뛰다 보니 어느새 특급이 거뜬히 나오게 되었다. 사실 동기들이 뱉어던 말들은 날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비료였을까?

발신 : KAYY 통신사, 수신 : 전 생도

KAYY 통신은 학교 내 생도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퍼지는 일종의 소문을 뜻하는 말이다. KAYY 통신은 빠르면 하루 이내에 생도여단에 퍼지게 되는데 가끔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서 전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최근 가장 뜨거웠던 KAYY 통신을 찾기 위해 생도들을 수소문했다. 그것은 바로 석가탄신일을 끼고 있는 연휴에 60기를 포함한 전 생도가 금박을 나간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소문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공지 속 한피디, '수신 : 전 생도'

생도 A : "동기회 버스 공지 올라온 것 봤어? 소문 돌던 금박이 우리 60기를 포함해서 전 생도가 다 나가는 거라는데?"
생도 B : "그럼 일단 기차표부터 끊어놓자. 내일하면 분명히 매진될걸?"
생도 A : "근데 복귀가 꼭 일요일일 필요가 있냐? 어차피 대체공휴일인데 월요일에 복귀 했으면 좋겠다."
생도 B : "그러네, 못 할 건 또 뭐야?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격려차 그럴 수도 있겠네!"
생도 A : "그랬으면 좋겠다ㅠㅠ"
그날 저녁 방송이 흘러나온다.
"정정 전파!"
"60기는 청원 출타자에 한해서 동기회 버스 이용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60기 전 생도는 청원출타자가 되었다.



천재 배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상향을 가진 군인이 되기 위해 충성대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최근 생도대에는 군인이 아닌 다른 직업 쪽으로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는 생도들이 많이 보인다. 바로 배우로서의 재능이다. 생도 일과 중 군대체육과 중대 체력단련시간에는 마치 중증 환자라도 된 것처럼 어깨와 다리를 부여잡고 열외하여 다른 곳에 앉아 시시덕거리는 이들은 체육시험, 측정, 구기 종목 시간에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아찔했던 다리위 어깨를 훌훌 털며 한마리의 새가 된 듯이 날아다닌다. 평소엔 이쁜 것처럼 연기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는 털어버리는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배우가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미래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모집홍보 활동 후기

60기 기자생도 강준성, 이주형

봄이 만개하고 여름이 조금씩 다가오던 5월 첫 주, 생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3일간의 모집홍보 활동을 다녀왔다. 입교 전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미래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이번 모집홍보는 학교에 전 생도와 간부 그리고 교관들이 참여했던 만큼 생도들에게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1년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모집홍보를 다녀온 생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출장 간 동정복을 착용했는데, 답지는 않았나요?

오여진(60기) : 저는 제주도로 모집홍보를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정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만큼 신났던 기분 만큼이나 신났던 날이었습니다. 동정복은 답긴 했습니다.

이승환(60기) : 모집홍보 첫날, 제가 간 경산의 최고 기온은 26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더웠습니다. 홍보물자를 들고 움직이고 나눠주면서 손이 바빴지만, 손수건을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더운 날씨여서 힘들었습니다.

정현우(60기) : 무더운 날씨인 걸 미리 알아서 동정복 착용이 두려웠지만, 건물 안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어느 날 아침은 조금 쌀쌀해서 저는 동정복 착용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60기) : 날씨가 답다는 소식을 들어서 하정복을 희망했으나, 동정복을 입고가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다행히 실내 홍보와 부스 활동으로 더위는 약간 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을 느꼈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여진(60기) : 학교를 대표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사관생도가 낯선 제주도에서는 제가 사관생도에 대한 외적 인상을 타인에게 남겨준다고 생각하여 행동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또, 전수대학인 제주대학교에 일찍 도착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입는 정복에 머무는 게 느껴졌을 때는 오묘한 느낌이었습니.

이승환(60기) : 일과시간에는 항상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복을 입은 나의 모습을 쳐다본다는 생각에 사소한 행동까지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대학교에서 기동홍보를 시작할 때는 나의 모습이 학교 홍보라 생각해 최대한 바른 걸음으로 걷고, 긴장하며 식사와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현우(60기) : 정복을 입고 다른 학교로 간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더해지면 낯설이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60기) : 저는 다른 생도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혹 몇몇 어른신들이 사관생도나고 질문하는 식으로 관심을 표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다니던 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오여진(60기) : 학교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교 모습에서 받은 인상의 변화보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장을 하면서 좋은 지인들을 만들었는데, 지인 중 동생들이 학생회를 꾸리고 운영하고, 또 다른 후배가 제 직책을 맡아 이해주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승환(60기) : 2018년 20살을 보냈던 영남대학교는 여전했습니다. 공과대학교 건물 특유의 음침한 기온도 여전했습니다. 몇몇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옛 동자들이 졸업반인 걸 보니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정현우(60기) : 저는 전수대학으로 홍보출장을 가지 않아 학교의 시설이나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대학교가 주는 인상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현기(60기) : 저는 입교 이전 코로나 학번이었습니다. 복직하는 대학가와 강의실을 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 모집홍보 기간에는 과거와 달리 복직하는 대학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모집홍보 간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오여진(60기) : 제주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약간 언덕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도 제주 시내와 가온 차이가 나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태풍까지 오니 일과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우산이 부서지는 것은 예사였고, 도저히 기동홍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금씩 괜찮아질 때 기동홍보를 이어나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승환(60기) : 홍보 업무를 위해 대학교에 부스 설치 협조를 요청했는데,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앓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기동홍보만 이어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쉬고 교내에서 기동홍보를 하는 루틴만 반복하여 하루 최대 20km를 걸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현우(60기) : 대학교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기 불과 30분 전에 발생해서 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50명 정도의 인원이 미리 모여있었던 터라, 미리 만들어둔 PPT와 홍보자료를 설명하며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것이 생각납니다.

김현기(60기) : 생도 여단장님이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홍보 준비에 신경을 썼던 것보다 이날 여단장님과의 식사시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홍보를 다녀온 소감 말씀해주세요.

오여진(60기) : 잠시나마 과거에 소중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 선배 혹은 후배들은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바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런 열정을 동기부여 삼아 생도 생활에 다시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승환(60기) : 오랜만에 전수대학을 다녀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년에도 전수대학에 홍보를 가게 된다면 지금 모자랐던 점들을 더 보완해서 수월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정현우(60기) : 이번 기간에 다양한 동문들을 만나 유대감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도 있었고, 제가 입교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후배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장교를 꿈꾸는 후배들도 얼른 입교하여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꿔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60기) : 사관생도가 되어 처음으로 사회에서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평소 바쁜 일과로 보지 못한 후배들에게 생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같은 대학을 다니다 온 선배 및 동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추후 후배로 입교할 인원들에게 제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던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할 수 있어 더욱 재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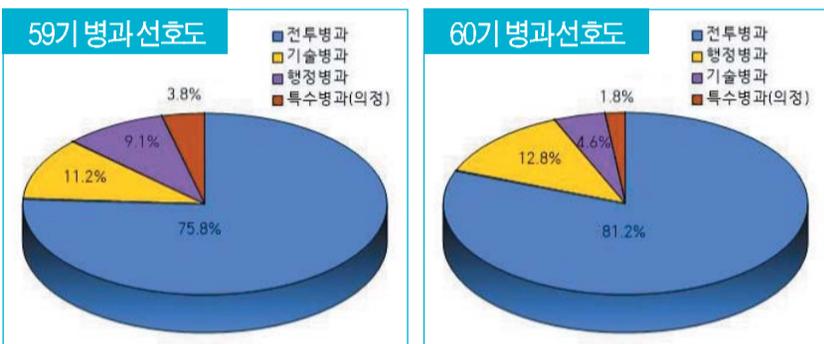


생도들이 선호하는 병과는?

59기 기자생도 오찬울

충성대신문사에서는 사관생도들의 병과학교 탐방을 기념하여 현재 생도들이 관심 있는 병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위해 59기, 60기 사관생도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설문을 통해 현재 생도들이 관심 있는 병과는 무엇인지, 병과를 선택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설문참여 인원 : 59기(445명), 60기(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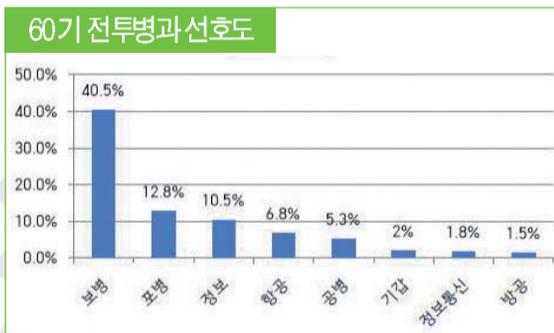
기본적인 설문 결과, 59기와 60기 모두 전투병과의 비율이 높게 집계되었다. 59기는 75.8%, 60기는 81.2%의 전투병과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전투병과에 대한 생도들의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기술행정병과의 비율이 낮지 않다. 특수병과(의정)까지 포함한 비율은 59기 24.2%, 60기 18.8%이다.



생도들의 전투병과 선호 순위를 매겨보면 59기는 전투병과의 경우 1~3순위로 보병(34.2%), 정보(10.6%), 포병(8.3%)의 결과가 나왔으며, 60기는 보병(40.5%), 포병(12.8%), 정보(10.5%) 순으로 나왔다.

생도들이 전투병과, 그중에서도 3개의 병과(보병, 정보, 포병)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보병의 경우 생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2가지의 이유가 나온다. 첫 번째는 장기 복무에 대한 확실성과 교육 기회 확대로 인한 미래 계획 수립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보병은 장기 복무 비율이 타 병과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생도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과 위탁 교육 확대 등의 기회가 타 병과에 비해 훨씬 많이 열려있고, 이로 인해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기에 전투병과에서 보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전투병과가 기술행정 병과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는 수색 및 지형 분석에 관심을 느끼는 생도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 병과는 자료 분석, 정보 보관 등 수색 및 탐지반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업무에 관심을 느끼는 생도들이 많은 것이 정보 병과 선호 비율이 높았던 결과로 조사되었다.

포병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 전술이 포병 전술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에 대한 흥미가 있는 생도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포병을 선호하는 많은 생도들이 세계사 분야 니콜레옹의 포병 전술과 책략에 흥미를 느껴서 포병에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생도들의 기술행정 및 특수병과의 선호 순위로 59기는 제정(3.8%), 의정(3.8%), 화생방(3.6%), 수송(3.6%) 순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60기는 군사경찰(7.5%), 제정(1.8%), 의정(1.8%) 순으로 나왔다.

59기와 60기의 선호 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생도들은 외관상 멋있어 보이는 병과, 자격증 및 특기를 살리기 수월한 병과를 선호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술행정 및 특수병과를 희망한 생도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단기 복무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병과를 선택한 후 전역 시 그 특기를 살려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술행정 및 특수병과의 비율이 적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앞으로 학교가 생도들의 장기 복무와 미래 계획 수립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생도들의 병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설문 자료가 앞으로 학교가 생도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생도들의 병과 선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칼럼 I



소령 문용득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요즘 도서관에는 전쟁을 경영이나 성공 철학과 결합한 주제의 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전쟁사와 군사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전쟁사에는 단지 전쟁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전쟁은 준비와 과정을 통해 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나타나고, 혹은 결과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취와 상실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전쟁사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특징이 있고, 따라서 좀 더 발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자만은 금물이다. 자만은 항상 성공과 함께 나타난다. 전황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패배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부분 자만

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일제의 과달카날섬 공략이나,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원정은 군사적 승리에 도취한 지도자의 자만이 궁극적인 패배의 시발점이었다. 6·25전쟁 때에도 낙동강 전선에서 김일성의 8·9월 공세나 유엔군 북진 시 맥아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도 모두 자만에서 비롯된 실패였다. 그렇다면 왜 자만은 실패를 불러오는가? 자만은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승자는 이전의 승리나 성공이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사

상실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초기 일제는 미국 등 연합국 진영을 상대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일제는 제1단계 전쟁목표인 ‘외곽방어지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이후 일제는 전쟁의 본래 목표였던 중국에 주안을 두지 않고, 호주-미국병참선 공략을 전쟁목표에 추가함으로써 과달카날 전투에 집착했다. 결국, 일제는 과달카날에서 반년을 소모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손자병법과 함께 동양의 양대 병법서로 불리는 오자병법에는 나라의 흥망성

터에서 책읽기와 글쓰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과거나 현재나 군사강대국의 장교들은 직업군인으로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인정받기 위해 혹독하게 양성된다. 사관생도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고, 생도 과정은 고되고 힘들다. 하지만 가슴 속에 찬란한 별의 꿈을 갖고 있다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증명해야 한다. 장교는 수십 명부터 수만 명에 이르는 부대원의 생명을 담보로 전투를 지휘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능력이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지성을 뒤로한 채 경험만을 앞세워 전장을 지휘하는 것은 무모함으로 부대원을 사지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십수 년에 걸친 철저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걸작 『전쟁론』을 통해 전쟁사 연구를 강조하였다. 군인이자 개인의 성공을 위해 전쟁사 공부를 거듭 당부한다. 강의실에서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험의 부담 없이 각종 서적이거나 콘텐츠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전쟁사가 제법 재밌게 다가올 것이다.

전쟁사로 깨닫는 삶의 지혜

실을 망각한 채 주관적 통찰력만을 과신하고, 이로 인해 객관적 판단을 소홀히 한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지피지기(知彼知己)” 구절은 합리적 상황판단을 위해 적과 나를 정확히 인식하라는 의미이다. 자만하지 않아야 합리적인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적과 나를 정확히 평가하며, 적시적절하게 결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성공이후에 자만하는 이유는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목표를

쇠를 좌우하는 첫 번째 덕목으로 도(道)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도(道)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서, 목표와 일관성을 잃지 말라는 원칙이다.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때때로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표에 부합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은 타고날 수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군인의 능력은 오롯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쟁 천재라 불리는 나폴레옹도 전쟁

칼럼 II



소령 권지민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해방 후 국제사회의 냉전 논리는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고 남과 북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가 각각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 상태는 5차례가 넘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와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의 긴분단은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부분까지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심각한 수준인데, 2018년 2월 10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남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8년 5개월 만에 청와대를 방문한 만찬 자리에서

‘오징어’와 ‘낙지’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김여정이 “그것부터 통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한 일화는 언어 이질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정체성의 범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오징어’와 ‘낙지’에 대한 인식에서 찾은 연구 질문을 거듭해 연구하면서 필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제도적인 통일 이전에 사회 각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통합이 선행되

국어(韓)이라는 글자를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서로 간의 민족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상이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선민족과 한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방에게 서로가 주장하는 조선민족과 한민족을 고집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 통일한국의 군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기획해야 할까? 이는 통일의 주역이 될 우리 생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

된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심껏 지휘하는 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다름’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생도들은 아(我)와 타(他)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간 조직의 처세(處世)에서의 모든 문제는 다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한다. 장교는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유·무형적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력을 감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작전과 관련하여 스스럼없이 상관에게 총언(忠言)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 이것은 상관도 하급자의 총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아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의 시작은 모두 ‘다름’의 이해에서 시작되며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정체성’의 문제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이 생도 생활 중 생도들에게 체득화가 되고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되어서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통일의 가장 기본은 서로 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듯이 그대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병력들을 ‘통일’된 방향으로 지휘하기 위해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란다.

다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장교로 거듭나길

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 과정에서 ‘정체성’과 관련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과거 예멘과 통일아랍공화국의 사례처럼 통일 이후에 재분단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에서도 관련된 제반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히 정책적·제도적·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북한이 다르다는 ‘다름’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북한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

어야 할 부분이며, 혹은 급변사태로 인해 제도적 통일이 가시화되더라도 어느 일방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재분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비단 통합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지휘자와 지휘관으로서 활약할 우리 생도들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생도들이 임관하고 지휘해야 할 병사 중에는 다문화가정 2세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2세 등 우리가 쉽게 ‘우리와 같은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정의하기 힘든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소·중대장 혹은 더 높은 직급의 지휘관으로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3사 13기)

올해는 한미동맹이 탄생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창군할 당시 한미동맹은 없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사주를 받는 김일성의 남침 준비를 간파하고 미국에 연합국방(동맹)을 제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1949년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미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자 김일성은 미국이 남침을 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런 그의 오판이 6.25 남침 전쟁 촉발 원인이 되었다. 만일 1950년 당시 한미동맹이 있었다면 김일성의 남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

국이였다면 푸틴은 결코 침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기습남침 직후 유엔 안보리는 공산군 격퇴결의안과 유엔군 구성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미국을 포함하여 유엔 16개 회원국이 군대를 파견했고, 6개국은 의료지원을 했다. 김일성의 계산과는 달리 미국은 신속하게 파병

한미동맹의 기원과 워싱턴선언의 의미

했다.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에 스미스 특임부대를 투입했으니 전쟁 발발 10일 만이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북진을 거듭하여 1950년 10월 하순경 국군 6사단은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하여 수통에 강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께 통일이 목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보고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하순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전세는 돌변했다.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에 이어 서울을 다시 내어주고는

물의 1.4 후퇴가 이어졌다. 전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51년 7월부터 정전 협상이 이어졌지만, 포로교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려는 고지전이 이어졌고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미국은 하루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부터 떠나길 원했다. 이런 미국의 속내를 꿰뚫고 있던 이승만은 정전협정 체결 후 미군이 떠난다면 김일성은 반드시 재침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전

협정에 적극 반대하면서 정전 이전에 한미 동맹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1953년 6월이 되자 미국은 이승만을 따돌리고 신속히 포로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승만에게 남은 것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밖에 없었다. 그는 미국과 협의 없이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했다. 그러자 정전 협상 파탄을 우려한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동의 없이 정전협정 체결을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하여 이승만과 담판했다. 결국, 이승만의 요구대로 정전협정 체결 직후 한미동맹조약이 탄생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재침 억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워싱턴선언' 합의를 도출했다. 동 선언의 골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미국 핵잠수함의 정례적 배치다.

미국이 개별국가와 확장억제를 서로 합의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동맹국 한국을 공격한다면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 정보 공유단계로부터 기획과 실행, 훈련까지 한미가 긴밀하게 함께하기로 했다. 즉, 미국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은 물론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사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선언은 한미동맹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의 격상을 의미한다. 즉, 한미동맹 2.0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저명인사 칼럼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장기적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에 전선이 고착된 가운데 뺏고 빼앗기는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게 작금의 전황이다. 지구촌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질이 되어 고통받는 지금, 종전은커녕 휴전조차 기약이 없다.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다양한 외부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개입되어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층위에서 전개되는 복합전(4-layered

complicated war) 모습을 보인다. 각 층위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양상의 불가측성을 심화시켰고, 전쟁의 미래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첫 번째 층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국지전으로 출발했다.

두 번째 층위는 돈바스 내전의 확전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주권 국가 사이의 전면전이다. 더 구체적으로

감행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예방전쟁(Preemptive Strike)의 성격도 지닌다.

세 번째 층위는 대리전 양상으로 표출된 미·러의 유라시아 패권전쟁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의 현상 유지와 이를 조정하려는 러시아의 현상 타파 야망이 유라시아 지정학의 '블랙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한 전쟁이다. 현재 이것이 전개되고 있는 양태는 나토의 동진 팽창에 대항해 다시 힘을 회복한 러시아가 자신의 배타적인 세력권을 수호하고 전

고 이 두 국가 그룹의 결속체인 EU·NATO와 BRICS·SCO(상하이협력기구)가 글로벌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는 국제전이다. 신냉전의 외양을 보이는 이 가치전쟁은 서구 대(對) 반·비서구 진영 간 국제질서 주도권 투쟁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망 재편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4층 구조의 복합전 성격을 지닌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반군 사이의 내전(국지전), 키이우의 나토 가입에 대한 이해 상충이 부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주권국가 사이의 전면전(예방전), 유라시아 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러의 패권전쟁(대리전), 서구 세계와 반·비서구 세계 사이의 가치전쟁(국제전)이 오버랩되어 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과 관여, 강대국 간 위신과 독점적 영향력 확보 경쟁, 안보 딜레마, 가치의 대립, 정체성 갈등과 영토 할양문제 등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면에 숨겨진 이런 이해구조의 다층적 성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찾기를 어렵게 하고 장기화를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왜 장기화되나?

로 말하면, 서구 세력권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 의지와 이를 자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충돌한 전쟁이다. 전형적인 강대국 정치의 논리로 설명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대러 봉쇄의 전초기지로서 나토의 군사기지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을 넘어 러시아의 사할적 이익지대 확보를 위해 크렘린이 선제적으로 무력 공격을

통적인 영향권을 복구하기 위해 반격을 가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번째 층위는 미국이 이끄는 서구 세계와 중·러를 중심으로 한 반(反)서구권 또는 비(非)서구권 사이에 상호이질적인 국가 발전 모델과 국제정치관의 충돌이 일으킨 가치전쟁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러시아가 각기 민주주의 국가 그룹과 권위주의 국가 그룹을 대표해 우크라이나에서 가치투쟁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

2023 트렌드 노트

소비 경험치가 높아지다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 돈에 대해 솔직하고, 뛰어난 경제 관념을 가진 이른바 '자본주의 키즈'들. 그러나 상대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질병과 같은 '자낭괴'와, 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서 돌연변이처럼 등장한 '갓생'이 있다.

'자낭괴'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준말로, 어느 인터넷 BJ가 별풍선을 받기 위해 과도한 연행을 하는 모습에 시청자가 남긴 댓글에서 파생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에 반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쓰이곤 한다.

실제로 도라에몽 캐릭터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배우가 도라에몽을 싫어하는 역할을 연기한 것이 '자낭괴'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야기되곤 한다. 그러나 현재 '자낭괴'는 자본주의적 세대에 대한 비판으로 쓰이기보단, 오히려 눈앞의 현실에 대해 자조적으로 쓰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감의 키워드로 사용된다.

'자낭괴'의 연관어로 '돈', '자본주의' 뿐 아니라 '블로그'와 '알바'가 상위권에 언급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네이버 주간일기 챌린지를 성공하기 위해 블로그에 기록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낭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낭괴'의 연관 감성 또한 '웃기다', '귀엽다'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에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

['자낭괴' 연관 감성어 Top10]

순위	키워드	언급량	비중
1	웃음	98	45.6%
2	진심	42	19.5%
3	사랑	28	13.0%
4	최애	24	11.2%
5	행복	7	3.3%
6	호감	4	1.9%
7	일방적	3	1.4%
8	범외	3	1.4%
9	귀여움	3	1.4%
10	욕	3	1.4%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 2020.01.01.~2023.05.31.

“한소희 ‘자낭괴’ 였네. 소주모델 발탁 후 ‘금주 선언’ 급취소폭소”

사실 자낭괴를 갓생으로 바꿔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블로그 챌린지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일상을 꾸준히 기록해 나가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한다. 즉, 행위는 같은데 행위를 해석하는 관점만 다른 것이다.

'자낭괴'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포기하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용어라면, '갓생'은 주어진 현실 조건을 뛰어넘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용어이다. '자낭괴'와 '갓생' 사이를 오고 가는 젊은 세대는 자기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현실과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경험을 원하고 있다.

“[대학생 일상] 수업이 끝나고 바로 알바를 간다. 자낭괴에게 여가시간이란 없다. 그래서 헬스를 일주일 동안 안 못 갔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 답주에 갈 것이다..!”

“자낭괴의 블챌. 와 나 지금 4월 일기도 쓰다가 미뤄왔는데 자낭괴라서 일단 블챌 먼저 조져볼게???”

그렇다면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동시에 소비 활동의 주체이다. 그런데 뚜렷하게 구분되던 경제활동과 소비 활동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이 자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경험' 월별 언급 추이]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트위터+커뮤니티, 2020.01.01.~2023.05.31.

미해지고 있는 지점인 것이다.

“전혀 비싸단 생각이 안 드네, 종류며 음식 퀄리티며 미쳤네”

“평일 점심때 제외되는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잘 봤습니다^^ 마치 내가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리뷰 ㅋㅋㅋ”

예전에는 어리석은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리석은 소비 경험이라든가 나의 고유한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간접 경험으로 여길 만한 경험으로 소개한다면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처럼 새로운 소비문화에서는 당장의 돈보다는 나중에라도 남는 경험, 그리고 경험 콘텐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세대들은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중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점점 더 게임을 닮아가고 있다. 게임 속 퀘스트를 완료함으로써 캐릭터의 스탯을 올릴 수 있듯이, 온라인 소비의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비 경험치를 획득한다.

소비 경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소비 경험을 콘텐츠로 만든 사례가 많다. 명품 언박싱부터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에 다녀온 경험, 지금까지 해본 시술 경험 등 희소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희소하고 값비싼 경험은 나에게 남는 경험자산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한 유튜브버가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호캅스를 즐기고 그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해보자. 이 행위는 경제활동인가 소비 활동인가. 이런 경우가 바로 경제활동과 소비 활동의 경계가 희

【유튜버 '츄릅컨' 콘텐츠 썸네일】



출처: <https://youtu.be/wHqJsdPQzE>

국가의 부채 시한폭탄, 디폴트(Def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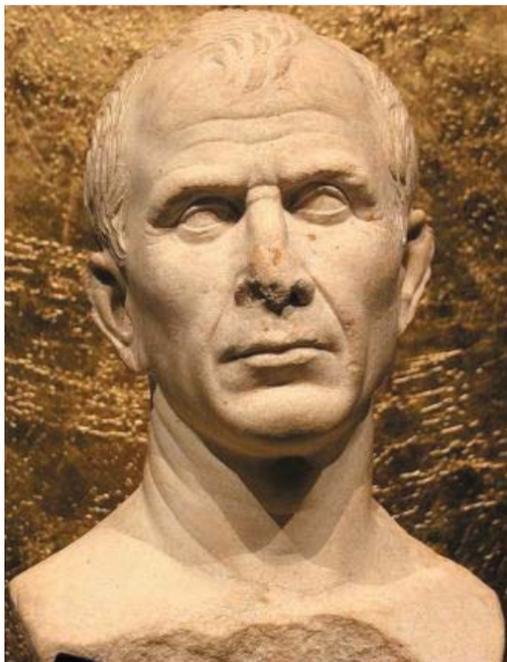
국가 채무와 디폴트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위험성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빚’이라는 단어는 흔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빚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지는 것이다. 이러한 빚은 자신의 재산을 넘어서 도박 등의 부정적인 무언가를 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하며, 경제학과 회계학적으로 부채라고도 불리며, 그 학문의 중요도 부문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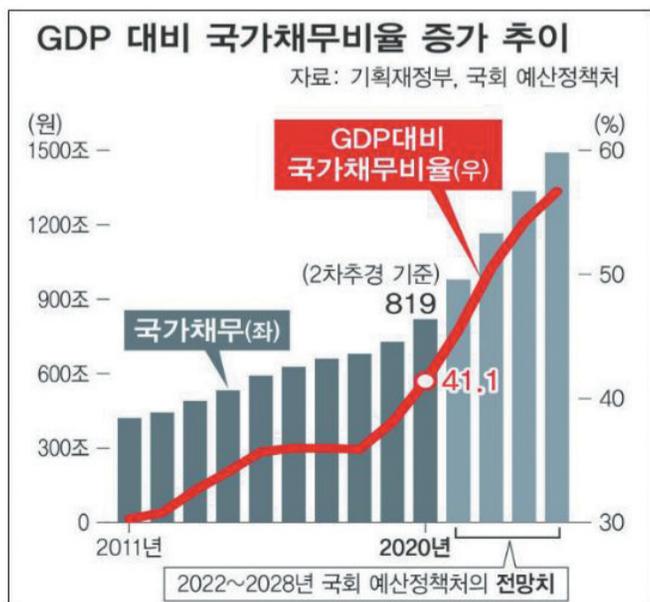


사실, 부채라는 개념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명한 사례로는 고대 로마의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일화가 있는데, 법무관으로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 하자, 빚쟁이들이 몰려와 떠날 수 없게 한 일화가 있다.

이처럼 부채는 경제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생긴 이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부채의 증가는 회계학적으로도 자산=부채+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일어난다. 재무적 개념으로는 부채를 통해 ‘지레의 작용’을 뜻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작용하여, 자기 자본 이익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부채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수익을 내어 자기 자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부채는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 국가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사용 목적을 지니고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의 부채인 국가 채무와 디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가의 채무란 무엇인가?



2022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다. 이처럼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채무와 국채를 헷갈릴 수도 있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러한 국채를 포함하여,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현대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 채무의 성격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단, 국가는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가 채무는 자기증식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렇기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자 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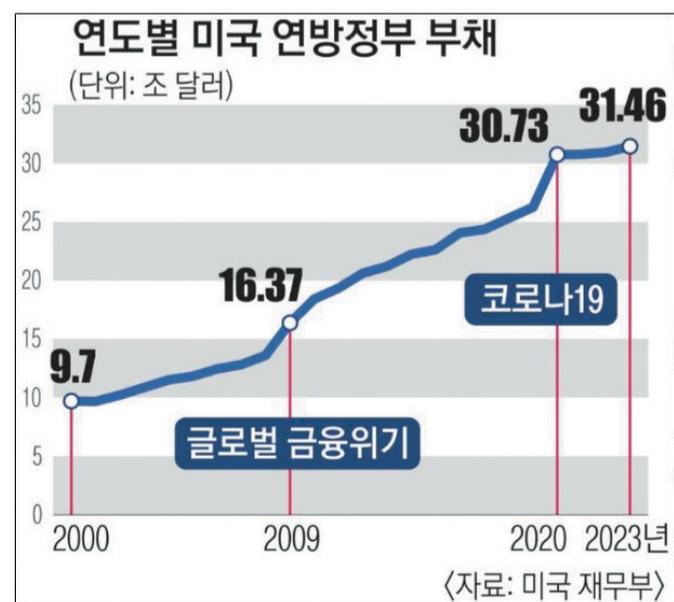
디폴트란?

최근 세계 경제 속에서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주목받고 있다. 디폴트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 시기나 이율의 지불 시점 등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자 지불 또는 원리금 상환을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상태를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라고 한다.

국가가 외국에서 차용한 빚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돈을 갚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즉각 중단되며 급여나 사회복지 재원을 지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해당국의 국채에 투자한 주변국의 은행들에게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도 최근 디폴트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의회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정한다. 정부의 국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통제기능, 예산편성의 유연성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아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9월 기준 미국의 부채는 28조 달러였고, 법정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로 법정한도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그래서 디폴트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미국 의회는 임시로 부채 한도를 늘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세계 경제 1위인 미국도 부채가 어마어마하며 자칫하면 디폴트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 부채 관리의 무서움이다. 한국도 가계부채를 포함하여 국가 부채가 나날이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코로나와 최근 국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디폴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채에 대한 각별한 감시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문(同門)의 소리

100억 그 이상의 가치, '내일'



중위 민경주(3사 56기)
제55보병사단

“당신에게 누군가 100억을 준다면 받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당연히 “네!”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다.

“100억을 받는 대신 당신은 내일 죽는다. 그래도 100억을 받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대답은 “아니요.”이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일’은 ‘100억’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 있다는 것을.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봤던 한 동영상의 내용이었다. 이 동영상을 본 후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당연하게 맞이하는 내일, 그리고 별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보냈던 나를 반추해 보았다. 출근해서 주어진 업무로 일과를 보내고 퇴근해서는 ‘오늘도 이만하면 됐어.’라며 저녁을 차려 먹고 일찍 잠자리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잠들곤 했다. 이렇게 반복됐던 하루들은 나의 지나간 내일들이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내일, 그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생각이 점점되어 며칠 동안은 이 생각에 깊이 빠져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 날 소풍을 위해 미리 준비물을 챙기고 빠진 건 없는지 몇 번이고 알람장을 재차 확인하고는 이부자리에 누워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하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소풍은 모든 어린이가 내일을 기대하게끔 만들었던 힘이었다.

나는 나만의 소풍을 찾기로 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매일 밤 일기장 한 편에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보기로 하였다. 첫째 날은 ‘아침 뽕겉음, 내일 점심 떡볶이, 오후에 티 타임’이라고 적었다. 작성할 때 한 가지는 꼭 달성하고 싶은 데일리 목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평소 작심삼일이던 아침 뽕겉음이 나의 첫 데일리 목표였다. 매일 일기를 쓰며 신기하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평소에는 ‘내일도 일하겠지, 내일도 피곤하겠지.’라며 부정적이게만 생각했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힘들었던 아침 뽕겉음도,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를 고민하는 것도 그저 즐겁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가 활기차다.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살며시 찾아온다.



우리 모두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타성에 젖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은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지는 각자의 몫이

다. 다가올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만의 소풍을 찾아봤으면 한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만의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보자.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변화는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일기를 쓰며 ‘내일은 또 뭘하지?’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며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를 적어본다. 100억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내일’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군 인사법 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

총동문회가 모교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 임관 시 장기복무**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신원식 국회의원 대표 발의**(여야 국회의원 15명 이상 동의)로 **5. 4.(목) 입법 발의**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12177)

입법 발의를 위해 힘써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걸음을 막 떴습니다. 입법 발의 이후에도 국방위 전문위원 및 입법 조사관 검토보고, 국방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상정 등 기나긴 여정

이 앞에 놓여있으며 방심해서 안 되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각 동기획 및 모든 동문님들의 더 큰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총동문회에서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동문님들과 공유하며 올해 내에 관철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법 발의를 위해 힘써주신 **김병주 의원, 설훈 의원, 송갑석 의원, 신원식 의원, 안규백 의원, 임병헌 의원, 최춘식 의원, 한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사 총동문회**





故 차성도 중위 추모식 참석

지난 5월 12일, 총동문회는 살신성인의 표상 故 차성도 중위의 제53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은 고인의 원소속 부대인 27사단이 해체되고, 15사단이 지역을 인수하며 처음으로 맡았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동생인 유가족을 비롯하여 총동문회장과 임원 8명, 1기 동기회 20여 명, 2군단장(장광선 중장)과 15사단장(강현우 소장) 및 장병들이 함께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차성도 중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며, “추모식을 통해 차성도 중위의 전우애와 애국심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故 차성도 중위(1기)는 1970년 1월 17일 육군소위로 임관해 육군27사단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그해 5월 13일 소대 야간방어 사격 훈련 중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핀을 뽑은 후 실수로 놓치자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들을 구한 뒤 순직했다.

3사 총동문회



효(孝) 실천 동문, 동문상 시상식 진행

총동문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 효(孝) 실천에 모범이 되는 동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총동문회장의 제안으로 처음 진행하였으며, 효(孝) 실천 모범 동문을 찾아 위로하고 그 뜻을 많은 동문들에게 전파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총동문회가 되고자 실시했다.

수상 선정은 각 기수 및 지역 동문회에서 평소 효를 실천해 온 모범 동문들을 추천하였으며, 추천서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해 온 아름다운 사연들이 녹아 있었다. 시상식은 총동문회장 인사말, 시상식, 효 실천 사례 청취, 오찬 순으로 진행했으며, 가슴 뭉클한 사연들에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수상 대상 인원은 총 15명으로 이들에게 상장, 기념품, 상금 20만 원을 증정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동문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했다. 앞으로도 총동문회는 효 실천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상식을 매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수상자

문종열(2기), 최창규(8기), 김재창, 박홍숙, 이원태, 이철성(9기), 김동명(12기), 김영화(15기), 우정제(18기), 이철희, 임귀택, 이홍규(21기), 박광호(28기), 김학중(29기), 양형용(31기)

3사 총동문회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지난 6월 6일, 총동문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날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였고, 총동문회 임원 및 각 동기회는 동문회 행사 공간에서 10시에 묵념하는 것으로 행

사를 대신하였다. 행사 이후 동기회는 동기회별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직한 동기들의 묘소를 돌아보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총동문회장은 정부 행사 후, 각 동기회를 순회하며 총동문회 활동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회

잊지 않겠습니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3. 4. 1 ~ 6. 26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91억 6천만원(2023. 6. 26 기준)

■ 단체

(주)대저건설 2,500만원, 국민은행 영천지점 1,000만원 (1억 1,700만원), 3사 48기 동기회 3,000만원

■ 학교발전 동창 특별기부자('23. 4. 1~6. 26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3(75), 두석적(육사#51) 3(224), 류지만(육사#52) 3(7), 이우진(육사#54 3(88), 변용성(육사#53 3(125), 이주실(육사#53 3(104), 김대영(육사#59 1(192), 문은석(육사#59 3(98), 홍희중(육사#61) 1(121), 홍인재(육사#65 3(54), 김희준(육사#67 3(18), 문준호(육사#67) 2(64), 조지웅(육사#68 1(24), 정운혁(육사#78) 9(47), 한덕수(학군#26 3(131), 남기웅(학군#29 3(36), 구희곤(학군#32 5(158), 임민택(학군#34 3(30), 송경태(학군#37 3(148), 이정훈(학군#38 3(108), 정우람(학군#46 3(42), 홍현신(학군#48 3(44), 최병찬(학군#52 3(20), 권영환(학군#56 3(12), 최재호(학사#29 3(148), 임도현(학사#54 3(127), 구주현(학사#55 3(50), 임채훈(학사#55 2(111), 성현애(학사#56 3(70), 심정현(학사#58 3(58), 김형태(간부#22 3(78), 최윤정(간사#38 3(63), 송소연(간사#58 3(44), 문길섭(준위) 3(6), 송승현(원사) 3(6), 강필승(군무원) 3(12), 이수진(군무원) 3(34), 정사연(군무원) 3(45), 심영실(유안상주시 향군임원) 100(100)

■ 졸업생 가족('23. 4. 1~6. 26 기부현황)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40), 김종국(#41 김성준 부) 10(400), 김정숙(#45 배형규 모) 12(188), 조경태(#45 황정태 모) 10(915), 백인숙(#47 ○○○ 모) 3(59), 성동모(#50 성영환 부) 6(250), 안승봉(#51 박상용 모) 30(1,180), 김현미(#52 오지현 모) 2(70), 이영미(#52 황성규 모) 9(364), 임성영(#52 임강민 부) 3(4), 정정화(#52 조강현 모) 3(364), 박일식(#53 정필승 모) 5(166), 조경숙(#53 유영빈 모) 6(166), 정의숙(#54 홍석규 모) 100(200), 서완수(#55 서지찬 부) 6(126), 정원섭(#55 정준영 부) 3(140), 송학빈(#56 송용준 부) 3(86), 정희숙(#56 배우희 모) 30(1,400), 조재훈(#56 조성진 부) 90(410), 강혜영(#57 고원석 모) 3(34), 김경남(#57 김민우 모) 3(33), 김근택(#57 김광진 부) 6(70), 김순말(#57 김준모 모) 4(64), 박경석(#57 박찬환 부) 6(78), 양내석(#57 양철민 부) 30(350), 오유미(#57 김주현 모) 6(74), 이동희(#57 박찬환 모) 9(101), 지미리아(#57 김대현 모) 10(295), 김한영(#58 김범수 모) 15(85), 유영환(#58 유수민 부) 6(24), 진경화(#58 김태욱 모) 15(205), 최결순(#58 최승환 부) 3(39), 한만근(#58 한현우 부) 6(66)

■ 재학생 부모('23. 4. 1~6. 26 기부현황)

▶ 4학년부모

김아령 9(48), 박주연 20(240), 신경희 10(40), 임승남 6(32), 장영복 2(16), 정신 3(16), 정영남 6(32), 조철만 8(14), 최 인 15(80), 최형준 3(12), 홍유경 100(200)

▶ 3학년부모

손학민 60(80), 윤희정 30(40), 임성영 3(4), 장은심 30(40), 정미경 15(25), 정양수 20(40), 정지한 10(10), 홍영욱 2(4), 홍혜숙 2(4)

■ 졸업생('23. 4. 1~6. 26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4(194), 남훈조 15(1,484), 이기권 2(362), 임관택 3(102), 최익환 3(104)
- ▶ 2기 윤경희 10(500) ▶ 3기 장영집 10(200) ▶ 4기 박태호 1(1)
- ▶ 5기 신장근 10(510), 정주철 1(1)
- ▶ 9기 류성열 1억, 권영호 15(530), 김현기 6(1,245), 윤지환 9(207), 최병학 15(1,345)
- ▶ 11기 김지호 1(1) ▶ 13기 김병용 1(1), 문성목 30(460), 조영돈 1(1)
- ▶ 14기 김길영 3(120), 김종환 2(77), 안호 30(2,190), 이순진 30(960), 이용진 20(410), 이종학 6(143)

- ▶ 15기 김성연 4(548), 박경환 1(289), 이종석 1(1)
- ▶ 16기 김성기 1(1), 류인환 1(1), 이영호 3(149), 이종우 3(182), 황병태 1(330)
- ▶ 17기 신영식 500(1,000)
- ▶ 18기 구연덕 1(152), 김용백 9(636), 박병진 1(1), 오동윤 1(1), 이기환 3(47), 이진생 1(1), 진기상 6(1120), 최희무 1(1)
- ▶ 19기 김익수 6(227), 이종형 10(320), 이창호 9(642), 홍성식 3(217)
- ▶ 20기 박권순 6(192), 서정열 2(514)
- ▶ 21기 신철수 106(1,310), 이정문 6(254)
- ▶ 22기 권순태 3(74), 권태정 24(101), 김면수 10(175), 정경호 2(66), 조태환 6(183), 천병규 6(492)
- ▶ 23기 김태일 3(252), 신영찬 3(93), 오승욱 6(308), 이운채 100(401), 최승환 3(29), 허강수 6(323)
- ▶ 24기 강민식 500(518), 광종만 6(96), 권오봉 3(236), 김도협 3(254), 김성래 6(76), 모경원 3(249), 박세철 3(92), 방성대 9(175), 이문희 3(114), 정정현 3(213)
- ▶ 25기 김명호 1(1), 문봉성 28(229), 배현국 5(15), 손종석 1(4), 장우수 3(71), 전희준 3(32), 정민교 1(2), 조익환 1(2), 조재희 3(145), 홍은표 2(220)
- ▶ 26기 고창준 15(384), 신태영 2(114), 양성안 3(24), 유근환 2(57), 이덕우 3(149), 이원주 9(184), 이태인 6(106), 임우영 3(266), 장용빈 3(145)
- ▶ 27기 김관수 9(145), 김덕중 3(90), 김성오 6(74), 김용범 6(60), 김지덕 3(44), 김호복 12(345), 나현민 4(204), 석수열 3(67), 원희문 1(326), 이화순 2(261), 정필규 3(66), 전태환 100(1,400)
- ▶ 28기 권승영 2(36), 권영철 3(130), 김창현 2(185), 박용섭 6(217), 유정일 3(57), 윤석찬 3(163)
- ▶ 29기 김강식 3(267), 김태영 6(74), 박성훈 3(175), 박태용 3(154), 이상일 3(210), 임성호 3(186), 최인섭 1(146), 현태식 3(172), 황재식 3(4)
- ▶ 30기 김광석 6(46), 김동혁 100(138), 김종권 2(105), 김효성 3(66), 남진오 3(77), 이병길 3(41), 이진 2(170), 임상달 3(141), 주경호 2(135), 홍성범 3(59), 함민호 3(122)
- ▶ 31기 권동호 6(104), 김민식 6(142), 김영태 3(203), 김태희 3(31), 김희업 3(248), 염환수 3(158), 이재준 3(232), 이훈복 3(70), 최대집 3(68), 전경인 3(55)
- ▶ 32기 권관덕 4(356), 김화용 3(135), 사인우 3(157), 송진수 10(110), 이태현 3(46), 주정용 3(6)
- ▶ 33기 권해욱 4(62), 김남식 3(185), 김성근 6(188), 김현규 6(436), 남석진 3(159), 노일 9(230), 신성근 3(5), 안경일 3(256), 안준영 9(185), 이정표 3(137), 조용화 3(39), 조재봉 3(132), 홍종원 2(51)
- ▶ 34기 김기수 3(202), 김민우 6(28), 김윤성 2(66), 김홍식 9(501), 이무이 3(426), 임찬훈 3(102), 정웅민 3(227), 정창근 3(128), 정준환 3(78), 조수창 3(203), 홍영기 3(47)
- ▶ 35기 김경철 3(31), 김수열 3(91), 박병준 9(374), 박상천 3(50), 박시근 3(208), 송명성 6(104), 이문희 3(171), 이호순 9(76), 은명훈 6(8), 임창규 3(129), 장준삼 3(166), 전성광 3(60), 정병삼 2(172), 정영석 3(127), 정호준 6(138), 하중수 3(47), 한종훈 6(411)
- ▶ 36기 김도희 6(98), 김동혁 3(111), 김명규 1(63), 김현 3(150), 양현승 12(236), 이광희 3(172), 이규호 3(137), 임중수 3(92), 장세호 3(223), 정우철 3(158), 조동근 3(239), 진연수 3(183)
- ▶ 37기 강성봉 3(188), 김양호 9(308), 김충기 6(191), 김홍년 3(254), 노진철 3(168), 문장근 3(42), 송석봉 6(195), 송용섭 6(329),

- 임태환 3(12), 옥원호 3(154), 이관모 3(160), 이용구 4(102), 이원형 6(319), 임원철 3(173), 전성진 3(149), 정우진 3(92), 정태욱 4(156), 정희철 3(148), 최정호 2(60), 최하용 6(120), 함성규 3(125)
- ▶ 38기 모을하 3(253), 문정민 3(138), 문현성 3(251), 서성결 3(95), 오영필 100(126), 이경식 3(199), 위재익 6(117), 정한욱 3(230), 조대현 3(62), 함기훈 3(106)
- ▶ 39기 권웅 3(66), 김의진 3(147), 김인경 3(105), 김지훈 6(131), 박철근 3(141), 송창현 6(155), 심용은 3(110), 양운차 3(88), 이대화 2(232), 이용렬 3(129), 이준석 3(97), 장동준 6(103), 정대겸 3(48), 최현철 3(294)
- ▶ 58기 강문정, 강민혁, 강승울, 강용호, 강호진, 곽성현, 곽찬휘, 권민, 권소희, 권오민, 권영명, 권윤준, 권용찬, 권혁, 기효근, 길사연, 김건아, 김건우, 김건희, 김경량, 김경민, 김경배, 김경호, 김관우, 김규래, 김대원, 김대영, 김덕환, 김도훈, 김동주, 김동하, 김동후, 김민서, 김민수, 김민준, 김민혁, 김민혁, 김범준, 김성수, 김성은, 김성현, 김세민, 김세민, 김세화, 김수현, 김승현, 김승현, 김시현, 김시훈, 김영우, 김영웅, 김영현, 김예림, 김우영, 김원영, 김유리, 김유찬, 김우룡, 김일영, 김재범, 김재환, 김준성, 김준오, 김지수, 김지원, 김지현, 김진규, 김진직, 김창균, 김창욱, 김태민, 김태은, 김태훈, 김하경, 김하림, 김현중, 김현준, 김현진, 김현진, 김형석, 김홍민, 김홍길, 남기영, 남건우, 남지웅, 남철우, 남현준, 도현근, 두성원, 류도현, 류명환, 류승운, 맹석환, 문민준, 문준혁, 문찬기, 문호준, 문희상, 민성준, 박근희, 박광민, 박도현, 박동현, 박민서, 박민우, 박민배, 박성덕, 박성우, 박소현, 박수현, 박영민, 박재영, 박재영, 박재현, 박재형, 박정현, 박제욱, 박종욱, 박주환, 박준수, 박채아, 박태식, 박태휘, 박현민, 박희규, 박희강, 박희정, 방영은, 배진한, 배효준, 백경기, 백인엽, 변현주, 서민재, 서상오, 서승환, 석수환, 석정원, 성태홍, 손혁준, 손현일, 손희원, 송문근, 송원영, 송은지, 신다훈, 신동하, 신수민, 신승식, 신지민, 심영환, 안상수, 엄정호, 엄태현, 여승준, 오성관, 오성진, 오세욱, 오수현, 오우환, 오현주, 유상민, 유수민, 유수민, 유영호, 유애나, 유요셉, 유요현, 윤건, 윤규원, 윤정엽, 윤정욱, 윤지현, 윤태명, 윤태민, 윤호현, 윤화창, 이관형, 이덕규, 이동욱, 이명공, 이민석, 이병호, 이서현, 이석주, 이성준, 이상혁, 이세형, 이수영, 이승민, 이승혜, 이신우, 이아진, 이연진, 이왕상, 이왕민, 이원희, 이은수, 이재경, 이재호, 이정은, 이정호, 이재희, 이준서, 이준홍, 이재명, 이지훈, 이진영, 이찬형, 이창훈, 이태우, 이현우, 이현재, 이현준, 이형주, 이환용, 이훈, 임상태, 임지현, 임진우, 임희중, 장인혁, 장재형, 장지호, 전동근, 정관주, 정도영, 정동근, 정석진, 정세민, 정여라, 정원진, 정원표, 정유진, 정은수, 정재삼, 정현호, 정호현, 조준범, 조현규, 조현준, 조해진, 주상현, 지영민, 진희은, 채민병, 천승현, 최부성, 최성민, 최승현, 최우현, 최윤서, 최일도, 최재혁, 최준, 최혁수, 최홍건, 추재호, 태현수, 하성일, 하지훈, 한광희, 한도운, 한병욱, 한영민, 한유나, 한지연, 한현우, 한현태, 현은학, 현우준, 현창민, 홍도연, 홍승현, 홍예찬, 홍주완, 홍지민, 황영호(각1만원), 김대용, 김우용, 김지수, 문수재, 오승준, 이정훈, 이준, 이준현, 조승환, 최희(각2만원), 고호훈, 김민민, 성동재, 원동규, 이성민, 이우영, 임민기, 황준태, 황태현(각3만원), 최슬희(4만원)
- ▶ 59기 이용훈 15(75)

▶ 지면제한으로 40~57기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니 참고바랍니다.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발전기금 참여 안내



제7대 재단이사진출범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이사회는 5월 26일, 제7대 박종진 이사장등 11명(신임 3명, 연임 10명)의 임원변경을 의결했다. 심임 제8대 이사장에 이창호(수도군단, 8군단장 역임, 197) 예비역 중장을, 신임이사에는 정의숙(국가보훈고



이사장 이창호



가)는 자신이 임관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모교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학교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기 류성열 동문, 1억원 쾌척

5월 26일 울산지역 중고교생에게 장학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유성문화재단 류성열 이사장(유성그룹 회장, 9



유성그룹회장 류성열



8기 동기회 1000만원 기부

4월 28일 8기 동기회는 임관50주년 행사를 최초로 모교에서 개최하는 동기로 기록되었다. 또 임관50주년 행사를 하며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하는 최초의 동기회라는 기록도 세우게 되었다. 임관후 반백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모교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음을 과시한 8기 동기회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48기 동기회 3천만원 기부유

5월 26일 임관10주년을 맞아 모교를 찾은 48기 졸업생들은 모교에 대한 감사가 크며 기부도 기존의 행사 동기회에 비해 3배인 3천만원을 기부하여 학교 건부 및 후배생도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전반기 장학금 1억 7020만원 지원

- 대외민간대학(서울대, 포항공대 경북대) 학교교류 수강생도 12명(4학년)에게 1학기분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학교교류장학금은 2학기에도 수강생도에게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 2023년도 6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생도 해외견학에 학교발전기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23년도는 육군예사는 일본, 베트남견학에 지원하며 학교발전기금은 미국, 유럽 등 소그룹 견학에 지원하여 생도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다양한문화체험을 하는데 활용된다.
- 전반기 대외경연대회 참가생도 지원, UN의대회, 전공학과 관련논문경연, 드론경연대회등 참가생도 420만원 지원